

콘텐츠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융합 미디어 전문가

미디어콘텐츠과

3년제

 실무중심 교육
  전문성 강화 교육
  인성 교육
  전문 분야 심화교육


T. 031.740.1308

<https://contents.shingu.ac.kr>

학과 소개



미래의 미디어콘텐츠 분야를 주도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미디어콘텐츠과는 3년제 전문학과와 전공심화과정을 통한 학사학위과정으로 운영됩니다.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진화하는 미디어의 흐름에 맞추어 다양한 매체 콘텐츠의 기획부터 편집, 퍼블리싱까지 생생한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실무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미디어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학과장 인터뷰



4차 산업혁명시대에 미디어계를 이끌어 갈 주역은 여러분입니다

성 주 임 | 미디어콘텐츠과 학과장

미디어산업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들어서면서 더욱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중심에는 콘텐츠가 핵심 영역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신구대학 미디어콘텐츠과는 시대와 현장의 흐름을 반영하여 미디어콘텐츠 분야의 교육과 인재 양성에 주동적인 역할을 해 왔으며, 우리나라 출판 및 미디어 분야의 우수한 인재들을 배출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출판미디어, 웹미디어, 영상미디어, 광고미디어 등 다양한 미디어 분야에서 콘텐츠를 종합적으로 기획, 제작, 관리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1년 과정의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이 개설되어있어 학위취득 후 대학원 진학이나 폭넓은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미디어콘텐츠과는 미디어계를 이끌어갈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미디어산업을 이끌어 갈 젊은 도전자들의 선택을 기대합니다.

커리큘럼



무한한 가능성과 뜨거운 열정을 뒷받침하는 최고의 교육 커리큘럼

잡지편집
실무

잡지 출판에 필요한 기획, 편집, 디자인, 제작 전 프로세스의 이론과 실무를 현장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결과물로 종이책과 전자책을 제작하여 졸업작품과 포트폴리오에 활용한다.

디지털사진
영상

카메라의 매커니즘과 원리를 이해하고, 디자인적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훈련함으로써 촬영에 적용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본인이 기획하여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편집한다.

뉴미디어
디자인

미디어에서 구현되는 커머셜 영상 콘텐츠를 기획, 촬영, 제작한다. 브랜드 홍보, 프로모션, CF, 뮤직비디오 등 커머셜 영상의 다양한 사례를 마케팅 관점, 기술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카피라이팅

영상광고, 인쇄광고,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미디어 광고의 전략과 표현에 관하여 이해하고 아이디어 발상을 통해 효과적인 광고카피 작성을 목표로 한다.

이북제작
실무

다양한 디바이스에 반응할 수 있는 웹페이지 제작을 위하여 UX/UI 기획, 레이아웃 설계, 편집 소프트웨어 활용, 웹 제작 및 구현 방법에 대한 지식을 학습한다.

디지털
스토리텔링
(전공심화)

빅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이 일반화되는 믹스드 미디어 시대에 길러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창의적인 스토리텔링에 대해 학습한다.

다양한
분야의
취업!풍부한 취업분야,
폭넓은 선택

- 디자인분야 : 편집디자인, 영상디자인, 웹디자인, UX/UI디자인, 출판디자인, 광고디자인, 그래픽디자인, 웹퍼블리싱
- 기획/마케팅분야 : 광고기획, 영상기획, 웹/앱서비스 기획, UI/UX기획, 콘텐츠 스토리텔링, 출판기획, 취재보도, 콘텐츠 마케팅

전략적 취업을 위한
다양한 자격증 취득

컴퓨터그래픽스기능사, GTQ, 웹디자인기능사, ACP, MOS, 전자출판기능사

대학생활



1 1 : 1 맞춤지도, 인생을 이끄는 멘토

출판콘텐츠와 웹콘텐츠의 기획, 편집디자인, 광고, 마케팅 등 세분화된 전공교수의 지도 아래 적성에 맞는 1:1 맞춤지도와 든든한 동문조직이 100% 취업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30년 이상의 오랜 역사 속에서 동문기업 CEO가 중심이 되어 SBC를 조직하고 멘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 글로벌 실무능력, 외국 기업에서 배운다!

미디어콘텐츠과는 교육시설과 교육 프로그램을 혁신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실무형 인재를 양성합니다. 해외인턴십을 시행하여 해외취업과 연계하고 있으며 해외 문화 탐방과 관련 업체를 견학하는 글로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대학원 진학도 미디어 콘텐츠과라면 OK

미디어콘텐츠과는 전공심화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년제 과정 졸업 후 1년의 전공심화과정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4 어라? 공부가 재미있네!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전공동아리를 비롯하여 학술세미나, 학회지 및 학과웹진 '감&동' 발행, 1·2학년 후견인제도 등을 통하여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대학생활을 이끌고 있습니다.

전공심화과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졸업생 대학원 합격

미디어콘텐츠과 학사학위과정은 3년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제로도서 우수인재를 선발하여 집중교육을 실시하며 높은 수준의 대학원 진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유빈(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시각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 홍지현(홍익대학교 광고디자인전공), 서민지(홍익대학교 광고디자인 전공), 김민정(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최다혜(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정인태(동국대학교 광고홍보학과), 최영훈(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고수화(홍익대학교 광고홍보학) 등의 학생이 대학원에 합격하였습니다.



학과 동아리에 대한 모든 것!



스토리텔링 동아리 '미스토리'를 소개합니다

저희 동아리는 에세이와 공모전 작품활동을 기반으로 꾸려나가는 나윤빈 교수님 산하의 스토리텔링 동아리입니다! 교내·외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공모전을 비롯하여 월간지 에세이 투고 및 독서토론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년에 구애받지 않고 같은 공모전에 지원하고 싶은 부원끼리 모여 작품출품을 준비하고 있으며 개인활동인 에세이같은 경우는 글 작성 후 부원들과 함께 읽어보며 피드백을 받고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Q&A

궁금하세요? 물어보세요!

Q1

졸업생들은 어떤 분야에 취업을 하나요? 취업률도 궁금해요!

출판/디자인, 마케팅, 광고 기획 등 다양한 분야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졸업 예정자들을 위해 교수님들께서 자세한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졸업 이후에도 매년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취업률조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졸업 후 1년 이내에 70%이상 되는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Q2

미디어콘텐츠과에 들어가면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나요?

전공 관련 자격증 수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과 안에서 수강한 과목 외의 GTQ, 웹디자인기사 자격증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공강을 활용한 수업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참여도와 취득률이 높은 편입니다.

Q3

현장실습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3학년 학생 중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계방학에 1~2개월간 진행하며 마지막 학기에 학기제 현장실습으로도 운영됩니다. 업체는 비상교육, 지학사, 미래엔, 네이버 등으로 출판, 웹, 영상, 광고, 홍보, 방송 관련 다양한 업체로 참여합니다.

Q4

미디어콘텐츠과 학생회는 재밌나요? 학생회는 어떤 역할인가요?

미디어콘텐츠과 학생회 안에는 두 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문화부'는 학과에서 진행하는 전반적인 행사 기획과 진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크게 학생MT, 체육대회 진행, 학교 축제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편집부'는 학과 잡지인 '감앤동'을 발간하는 부서입니다. 자세한 학과 소식과 학생들이 관심 가질 수 있을만한 문화생활을 직접 소개해주시기도 합니다. 두 부서 모두 학과를 위해 힘 써줄 수 있는 학생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조교님과 선배들이 모여 학과 적응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졸업생 인터뷰



모든 것의 시작은 방향을 잡는 일이다

백 명 학 동문 / 미디어콘텐츠과



마케팅의 전략에 따라 한 상품의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기업의 이미지를 정하기도 한다. 모바일 패션 액세서리 브랜드인 슈피겐 코리아 마케팅팀에서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백명학 동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오래 걷기 위한 휴식기

현재 모바일 패션 액세서리 브랜드인 '슈피겐 코리아'에서 마케팅팀 매니저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백명학 동문은 마케팅이 어디에도 적용할 수 있고, 변화가 가능하기때문에 마케팅은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했다. 마케팅은 어떤 일을 하든지 기본적으로 익혀야 하는 분야이며,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했기에 이쪽으로 진로를 정하게 된 것이다. 백명학 동문은 2010년에 입학해 2018년에 졸업했다. 전공심화과정을 포함했다 해도 짧지 않은 기간인 8년의 시간을 거쳐 졸업장을 받았다. 동기들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긴 4년의 휴학기. 빠른 졸업을 택하지 않은 백명학 동문은 그 선택에 후회하지 않았다.

마케팅은 누군가를 설득하는 것

학창시절 했던 활동 중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냐고 물었더니 그는 잠시 생각한 뒤 조별 발표 활동을 꼽았다. 다른 많은 활동 중 조별 발표를 꼽은 이유를 물었더니 "마케팅의 주요 업무가 PR인데 이게 결국엔 남을 설득하는 거예요. 조별 발표 같은 것을 할 때 조장을 많이 맡다 보니 자연스럽게 앞에 나서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서 남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많이 겪었어요. 그게 마케팅 일을 하는데 초석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라며 차분하게 대답하는 모습에서 소소한 경험부터 쌓아 올린 그의 마케팅 철학을 엿볼 수 있었다.

마케터로서의 그의 노력

사람들에게 공감 가는 콘텐츠를 만들어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제품을 알리는 것이 그의 마케팅 방법이다. 그래서 그는 평소 페이스북 페이지나 기업 채널 등 소비자들의 반응을 즉각 볼 수 있는 브레인스토밍을 매일같이 찾아보며 아이디어를 얻는다고 한다. "다른 직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는 수많은 고뇌와 컨펌을 통과해야 하는 것 같아요. 고뇌하고 생각하고 찾아보고 또 고뇌하고 생각하고 찾아보며 자신에게 맞는 영역을 구체적으로 그려나가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케팅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작업할 때면 생각의 깊이가 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가 변화되고 있고 그런 변화를 실감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은 나무가 아닌 숲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로 인해 자신을 바라보는 객관적인 눈을 키울 수 있었던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은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란 걸 느끼게 했다. 시작을 두려워하는 20대 후배들을 향해서는 시작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조언을 해주었다. 무엇이든 실행하는 게 마케터의 시작이라고 말하였다. 속도보다 가야 할 방향을 정하고 그에 맞는 레시피를 스스로 개발해보는 것. 결과가 짜다면 물을 넣으면 되고 싱겁다면 간을 더하면 된다며 현재 후배들에게는 요리를 내놓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다며 격려를 해주었다.